

“수수료 없어 좋아요” 제로페이 가맹점 급증

광주·전남 8000여곳...편의점이 가장 많아 이마트·다이소 도입...소상공인 동참도 늘어

‘수수료 0원’인 모바일 지불결제 ‘제로페이’ 가맹점이 광주·전남에서 8000곳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초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출시할 계획이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광주 2704개·전남 5750개 등 모두 8454곳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 가맹점 비율은 전체(28만3000개)의 2.9% 수준으로 서울·경기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부산·경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기청 측 설명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달 등록 점포는 560여 곳으로, 8개월 전 제로페이가 출시될 당시 등록된 45곳과 비교해 12배가 넘었다. 전국에서 제로페이를 결제된 금액은 26일 기준 275억여 원으로, 점포 1곳당 평균 결제 금액은 9만7000원 정도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광주지역 가맹점 현황을 구별로 보면 서구가 464개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461개 ▲북구 423개 ▲동구 289개 ▲남구 186개가 뒤를 이었다. 제로페이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편의점이다. 광주에서 등록된 편의점만 787개로, ▲지에스25 250개 ▲씨유 218개 ▲세븐일레븐 168개 ▲미니스톱 79 ▲이마트 24 72개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부터는 광주·전남 8곳을 포함



한 모든 이마트와 일렉트마트에서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1000원짜리 상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이소’ (광주 23·전남 15곳)에서도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제로페이 도입에 동참하려는 지역 소상공인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사)금남지하도상가상인회는 지난 21일부터 지하도상가 만남의 광장에서 제로페이 앱을 설치한 고객에게 3000원 할인권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까지 제로페이 결제 인증사진을 보내면 유럽여행 상품권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 여수를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제로페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갑주 전남소상공인협회 대표는 “제로

페이가 실제로 가맹점은 많은데 사용자가 적다”며 “제로페이가 사용된 만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박 장관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로페이는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연 매출이 8억원을 넘지 않으면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8억원이 넘으면 0.3~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경우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함께 이용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21개 참여 결제사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계좌 등록을 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위치와 결제 방법 등은 홈페이지(zeropa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33.41 (-7.68)	↓ 금리(국고채 3년)	1.17 (-0.01)
↓ 코스닥	599.57 (-3.33)	↑ 환율(USD)	1216.40 (+2.50)



광주은행 ‘무등산 수박 살리기’ 2000만원 어치 구입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9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 행사에 동참해 무등산 수박 총 2000만원의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구입행사에는 이춘우(왼쪽) 광주은행 부행장과 이달주 북구 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무등산 수박 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의 뜻을 모았다.

생산인력 노령화 및 생산량 감소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무등산 수박은 매년 판매량이 줄고 있어 재배 능가

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2000만원의 수박을 구입해 임직원들과 함께 무등산 수박 살리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이번 ‘무등산 수박 살리기 운동’에 참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일본 수출규제 대응·통상 전략 설명회
일본의 2차 수출규제가 28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광주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9일 오후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지역 무역관련 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 및 2020년도 통상 전략 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사육 한·육우 52만마리...20년새 2배 ↑

소농 폐업으로 사육 가구수 줄어
우리나라 육우 소비가 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기른 한·육우는 52만여 마리로 20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사육 가구수는 오히려 줄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새천년 이후 지난 20년간(2000~2019년) 전남(광주)지역 가축동향 변화’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육된 한·육우는 52만6000마리, 돼지 114만2000마리, 젓소 3만1000마리, 닭 2609만9000마리로 조사됐다.

한·육우의 경우 20년 전인 2000년 26만

7000마리보다 97.2% 크게 늘었다. 전국 한·육우 마릿수는 올해 319만4000마리로, 20년 새 77.4% 증가했다.

지역에서 기른 돼지는 전국적으로 소비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해 20년 전(75만5000마리) 보다 45.5% 증가했다. 닭 사육 역시 20년 전보다 80.3% 증가했고, 젓소는 원유(原料) 수입이 늘면서 23% 감소했다.

광주·전남 한·육우 사육 가구수는 1만 7000가구로 20년 전보다 73.9% 감소했고 ▲돼지 540가구(90.3% ↓) ▲젓소 473가구(47.2% ↓) ▲닭 3887가구(기준년도 2006년비 10.8% ↓) 등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마트 광주점 식품·전자매장 대대적 개선

9월 4일까지 기념 할인 행사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이 29일 식품·전자제품 매장을 개선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 개점한 이마트 광주점은 13년 만에 대대적인 공사를 거쳐 신선식품 냉장·냉동 장비를 교체했다. 매장 진열도 확장해 총 100여 종의 식품으로 매대를 채웠다. 새로 마련한 ‘식품·텔리 서비스 매장’에는 도시락 식당 ‘오색 밥상’과 중화요리, 유부초밥, 말이김밥 전문점 등을 유지했다.

매장 2층에 위치한 가전 매장에는 ‘프리

미엄 가전’을 보강했다. 삼성·LG전자 매장은 ‘QLED 8K’와 ‘올레드 TV’ 등 초고화질 티비 비중을 70%까지 올렸고, 워니 아담채 매장이 새로 들어섰다. 또 16kg 초대용량 건조기와 300만원대 의류관리기,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등 기존 마트에서 보기 힘든 가전도 마련됐다.

가전 매장 인근에서는 화물전기차 등 9종의 전기차를 선보이고, 신규 입점한 ㈜대풍EV전기차는 다음 달 20일까지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광주점은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는 9월4일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최고 품질 생산공장 수상’ 도전

미국 ‘IQS Plant Award’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자동차 품질인증상에 도전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임직원들은 29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자동차 관련 품질 인증 상인 ‘2020 IQS Plant Award’ (신차품질평가 생산공장 상) 수상에 도전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임직원들은 결의대회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IQS Plant Award 수상을 위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자”며 “현장 관리자 중심의 자발적인 품질 활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표준작업으로 무결점 차

량 생산에 도전 ▲커넥트 체결과 같은 기초품질 일상관리 생활화 ▲고장품질 제로화 달성 등 현장관리자 중심의 자발적 품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품질 조사기관인 제이디 파워(J.D.Power)는 매년 신차품질(IQS)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6월 제이디파워가 실시한 IQS에서 5년 연속 일반 브랜드 1위를 차지했고,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는 소형 SUV 부문에서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스포티지가 올해 상반기 차량 품질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생산공장 상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